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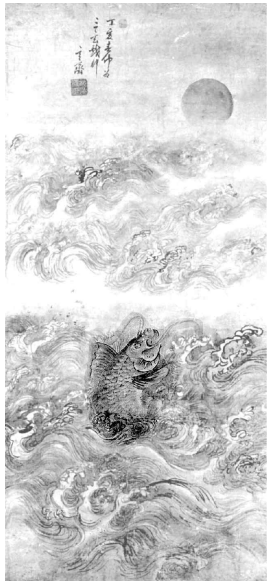
제 5 교시

제2외국어/한문 영역(한문 I)

성명

수험번호 3

1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 [1점]



학생: 넘실거리는 파도에 물고기가 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나요?

교사: 네. 이 그림은 심사정의 작품으로, 실제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등용문(登龍門) 고사를 소재로 삼아 그린 것으로, 입신출세를 기원하고 있지요. 물고기가 뛰어 오르며 해를 맞기한다는 뜻의 '魚躍(㉠)日'이라는 제목처럼 약동하는 잉어의 기운이 느껴지나요?

- ① 每 ② 時 ③ 昨 ④ 迎 ⑤ 擇

2.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한자는? [1점]

이 글자 앞에 '宿'을 결합하면 '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.'을 뜻하는 말로 쓰여.

갑골문으로는 이렇게 생겼어.

총획은 '依'와 같아.

음은 '名'와/과 같아.

- ① 命 ② 念 ③ 冥 ④ 守 ⑤ 容

3. ㉠과 ㉡에 해당하는 한자의 음이 모두 옳은 것은? [1점]

이 카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한자로는 무엇이 있을까요?

勿

耳 心

'心'의 왼쪽에 '耳'를 붙이면 '(㉠)'가, '心'의 위쪽에 '勿'을 붙이면 '(㉡)'이 돼요.

- ㉠ ㉡ ㉠ ㉡ ㉠ ㉡
- ① 이 흘 ② 이 물 ③ 이 급
- ④ 치 흘 ⑤ 치 물

4.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된 것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1점]

< 보 기 >

ㄱ. 康 - 寧	ㄴ. 尊 - 卑
ㄷ. 添 - 加	ㄹ. 衆 - 寡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ㄹ
- ④ ㄴ, ㄹ ⑤ ㄷ, ㄹ

5.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 [1점]

【 ㉠ 】

원래의 뜻 꽃이 흩어짐.

확장된 뜻 어떤 대상이나 목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침.

- ① 草案 ② 落點 ③ 採根 ④ 破鏡 ⑤ 散華

6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선생님, 기둥에 있는 글귀가 '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.'는 뜻이지요?

정확히 풀이했어요. 이렇게 기둥이나 벽에 세로로 써 붙이는 글귀를 주련(柱聯)이라고 해요.

梅 一 生 寒 不 ㉠ 香

- ① 貫 ② 賣 ③ 價 ④ 質 ⑤ 賀

7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중국에 오니 아는 한자들이 보이네. 그런데 '上班', '下班'이 무슨 뜻이야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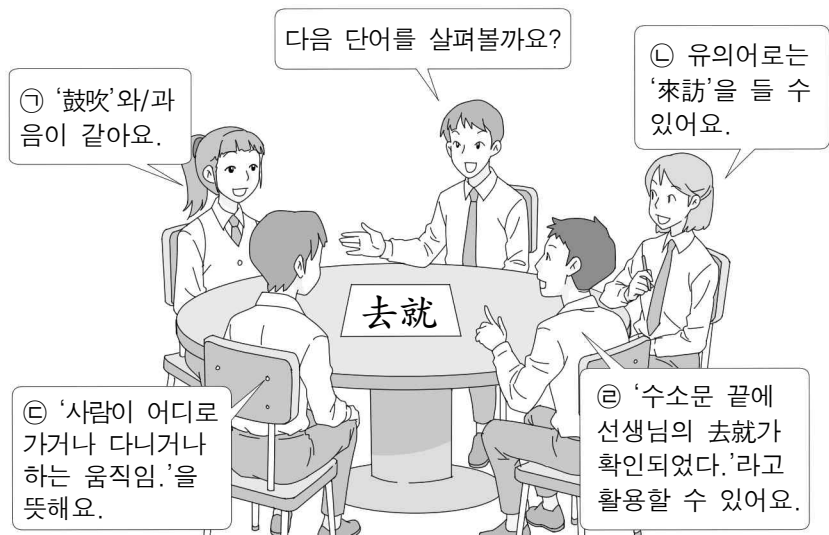
일터로 근무하러 나가는 시간과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을 말해. 한국의 '出勤'과 '(㉠)勤'이란 뜻이지.

<招人>

○○:○○○
△△:△△△
□□:□□□
上班: 09:00
下班: 17: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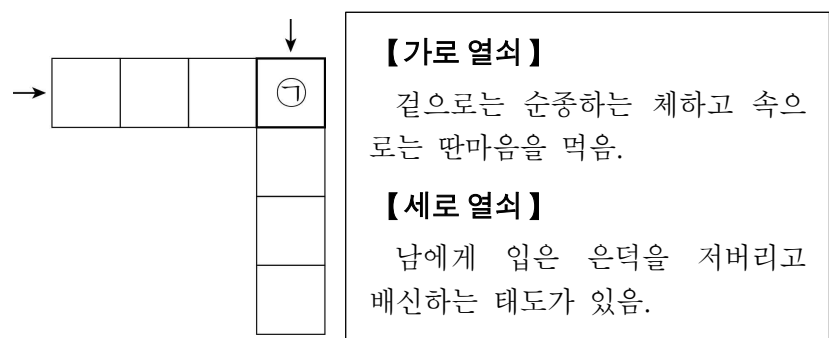
- ① 夜 ② 缺 ③ 皆 ④ 通 ⑤ 退

8.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

- ① ㉠, ㉡ ② ㉠, ㉢ ③ ㉢, ㉣
- ④ ㉠, ㉡, ㉣ ⑤ ㉡, ㉢, ㉣

9.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, ㉠에 알맞은 것은?



- ① 心 ② 他 ③ 背 ④ 表 ⑤ 德

10.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성어는?

福之爲禍, 禍之爲福, 化不可極, 深不可測也.
- 『회남자』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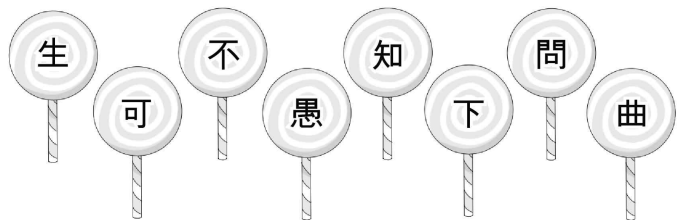
- ① 塞翁之馬 ② 陰德陽報 ③ 喜怒哀樂
- ④ 勸善懲惡 ⑤ 苦盡甘來

11.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해당하는 성어는? [1점]

김담(金澹)은 효성이 지극하여 ㉠ 40여 년 동안 부모님 모시기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.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곡하는 소리가 끊임없었고 지팡이를 짚어야 겨우 일어났다. 무덤 앞에서 잔에 술을 부어 놓고 엎드려 종일토록 통곡했는데, 잔이 문득 말라 사람들이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.
- 『성소부부고』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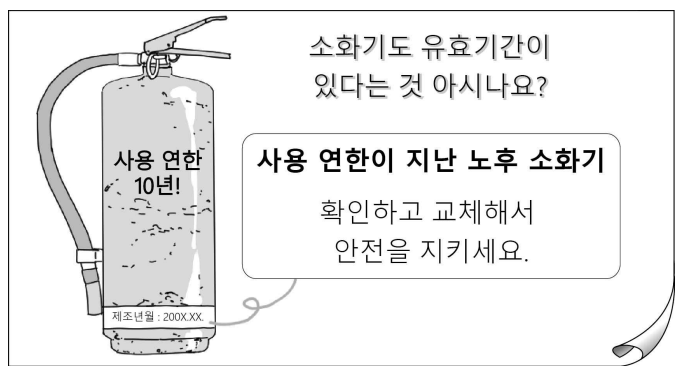
- ① 首丘初心 ② 結草報恩 ③ 同床異夢
- ④ 昏定晨省 ⑤ 朝三暮四

12. 그림의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계있는 것은?



- ① 모르면 동생에게라도 물어봐야겠어.
- ② 난 물어보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알아.
- ③ 나는 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
- ④ 잘잘못은 따지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군.
- ⑤ 불분명한 질문인데도 정확한 답변을 하네.

13. 광고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?



- ① 不幸由己, 何不自反.
- ② 律己須明白, 待人要包容.
- ③ 聲無細而不聞, 行無隱而不形.
- ④ 與其病後能服藥, 不若病前能自防.
- ⑤ 人心固結則國安, 人心離散則國危.

14.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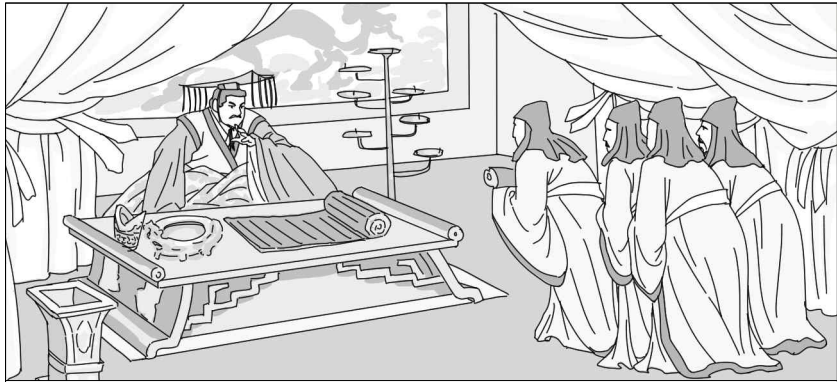
- ① 已往休須念, 方來且莫思.
- ② 家貧思賢妻, 國亂思良相.
- ③ 道吾過者, 是吾師, 談吾美者, 是吾賊.
- ④ 不責人小過, 不發人陰私, 不念人舊惡.
- ⑤ 口腹不節, 致疾之因, 念慮不正, 殺身之本.

15. 글의 흐름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

圖大於細者(㉠), 忘難於易者亡.
- 『무릉잡고』 -

- ① 興 ② 想 ③ 看 ④ 步 ⑤ 苦

16. 시나리오의 내용으로 보아 ㉠과 관계있는 것은?



S# 89. 어전 회의

전국 시대 조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외침에 시달렸다. 하지만, 개혁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임금과 달리 신하들은 현실에 안주하기만 했다.

임금: (차분한 목소리로) 우리의 옷은 소매가 넓고 옷자락이 길어 일을 하거나 말을 타기에는 불편하오. 반면 오랑캐의 옷은 소매가 좁고 옷자락이 짧아 일하거나 전쟁을 할 때 편리하니 우리도 오랑캐들의 의복을 따라하면 어떻겠소?

신하: (목소리를 높이며) 예부터 내려오던 우리 나라의 전통복장을 버리고 미천한 오랑캐의 복장을 따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

임금: (단호한 목소리로) 경들은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인데도 여전히 전통 타령만 하시오! ㉠ 전통 타령만 하다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어찌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소.

- ① 經師易得, 人師難得.
- ② 同欲者相憎, 同憂者相親.
- ③ 以古制今者, 不達事之變.
- ④ 古之學者, 爲己, 今之學者, 爲人.
- ⑤ 察己則可以知人, 察今則可以知古.

17. 시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?

조국 광복 위해 평생을 몸 바쳐서,
넘어지고 쓰러지길 어언 사십 년.
뜻한 사업은 이미 어그러지고,
몸쓸 병만 공연히 몸에 남았네.
거동할 땐 도움이 필요한 처지,
숨 헐떡이며 괴이하게 연명하누나.
병든 노구를 이끌고 돌아온 고향,
동강대는 잿빛 연기에 휩싸였도다.
구부정한 모습으로 찾아든 옛집,
무너진 벽과 서까래 몇 개만 남아.
병든 이 몸이 돌아갈 곳 없어,
선조의 사당 앞을 서성거린다.

- 『심산유고』 -

- ① 附耳之言, 勿聽焉.
- ② 疑人莫用, 用人莫疑.
- ③ 尺有所短, 寸有所長.
- ④ 公事先於人, 私事後於人.
- ⑤ 樂極而生哀, 當益而慮謙.

18. 글의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?

三日之程, 一日往, 十日臥.

- 『순오지』 -

- ① 知而不爲, 莫如不知.
- ② 聞道百, 以爲莫己若者.
- ③ 言勿異於行, 行勿異於言.
- ④ 與其安而放心也, 寧危而自持.
- ⑤ 凡事, 量力而行, 則可久而不敗.

[19~20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子謂顏淵曰: “用之則行, ㉠舍之則藏, ㉡惟我與爾, 有是夫!”
子路曰: “㉢子行三軍, 則㉣誰與?” 子曰: “暴虎馮河, 死而無
㉤悔者, 吾不與也, 必也臨事而懼, 好謀而成者也.”

* 顏淵(안연): 사람 이름 * 爾(이): 너 * 馮(빙): 건너다

- 『논어』 -

19. ㉠~㉤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버리다 ② ㉡: 오직 ③ ㉢: 선생님
- ④ ㉣: 누구 ⑤ ㉤: 두렵다

20. 윗글의 내용을 <보기>와 같이 정리할 때 ㉦에 알맞은 것은?

< 보 기 >

공자는 (㉦)한 사람과 함께하고자 한다.

- ① 愼重 ② 公正 ③ 善良 ④ 愚直 ⑤ 大凡

[21~22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衛國安民, 兵爲最急, 無虞之世, 尤不可緩. 古之聖王, 治不忘亂, 安不忘危, 克詰於㉠閑暇之日, 張皇於緩急之際, 此所謂
(㉡)也.

* 虞(우): 근심하다 * 詰(힐): 다스리다

- 『회재집』 -

21. ㉠의 독음으로 옳은 것은? [1점]

- ① 여가 ② 여유 ③ 한가 ④ 한산 ⑤ 휴가

22. 글의 흐름으로 보아 ㉢에 들어갈 내용과 관계있는 성어는? [1점]

- ① 孤掌難鳴 ② 見危致命 ③ 累卵之危
- ④ 居安思危 ⑤ 一舉兩得

[23 ~ 24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凡曰某事難者，皆不爲也，非不能也。人之才分，固有㉠限量，而肯心所指，事無不成，怠心所指，事無不毀。人之喜事者，以有肯心而常覺於易也，人之厭事者，以有怠心而常覺於難也。

*厭(염): 싫어하다
- 『홍재전서』 -

23. ㉠과 짜임이 같은 것은?

- ① 空冊 ② 高低 ③ 骨折 ④ 希望 ⑤ 難解

24.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?

- ① 무엇보다 백성들의 생계가 우선이다.
- ②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.
- ③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정해야 한다.
- ④ 백성들이 화합해야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.
- ⑤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야 일이 성취될 수 있다.

[25 ~ 27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㉡管仲曰：“吾始困時，嘗與鮑叔賈，分財利，多自㉢與，鮑叔，不以我爲貪，知我貧也。吾嘗爲鮑叔，謀事，而㉣更窮困，鮑叔，不以我㉤爲愚，知時有利不利也。吾嘗三仕，㉥三見逐於君，鮑叔，不以我爲不肖，知我不遭時也。吾嘗三戰三走，鮑叔，不以我爲怯，知我有老母也。〈중략〉 生我者，父母，知我者，鮑子也。”

*鮑叔(포숙): 사람 이름 *賈(고): 장사하다 *遭(조): 만나다
*怯(겁): 겁내다
- 『사기』 -

25. ㉢ ~ ㉤의 풀이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< 보 기 >

㉢: 주다 ㉣: 고치다 ㉤: 여기다

- ① ㉢ ② ㉣ ③ ㉢, ㉤
- ④ ㉣, ㉤ ⑤ ㉢, ㉣, ㉤

26. 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한때 집안이 곤궁하였다.
- ② 포숙과 장사를 함께 하였다.
- ③ 관직에 나갔으나 번번이 쫓겨났다.
- ④ 전쟁터에 나갔다가 도망친 적이 있다.
- ⑤ 임금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한탄했다.

27. ㉥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은?

- ① 三 ② 見 ③ 逐 ④ 於 ⑤ 君

[28 ~ 30]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穿雪野中㉠去， 不㉡須胡亂行。
今朝我行㉢跡， 遂作後人程。

*穿(천): 뚫다
- 이양연, 「야설(野雪)」 -

(나) 離別家鄉歲月多， 近來人㉣事半消磨。
㉤唯有門前鏡湖水， 春風不改舊時波。

- 하지장, 「회향우서(回鄉偶書)」 -

28. ㉠ ~ ㉤의 풀이로 옳은 것은?

- ① ㉠: 없애다 ② ㉡: 모름지기
- ③ ㉢: 떠나다 ④ ㉣: 섬기다
- ⑤ ㉤: 비록

29.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< 보 기 >

ㄱ. (가)의 형식은 오언율시이다.

ㄴ. (가)의 넷째 구는 '遂作/後人程'으로 띄어 읽는다.

ㄷ. (나)의 첫째 구와 둘째 구는 대우(對偶)를 이루고 있다.

ㄹ. (나)의 셋째 구는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ㄹ
- ④ ㄱ, ㄷ, ㄹ ⑤ ㄴ, ㄷ, ㄹ

30.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?

- ① (가)에는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어.
- ② (가)에는 전란의 아픔이 나타나 있어.
- ③ (나)에는 자연과 대조하여 세월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어.
- ④ (나)에는 시적 화자의 신분이 드러나 있어.
- ⑤ (가), (나)에는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어.

※ 확인 사항

-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